**난민 반대 진영의 농성자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왜곡 주장 반박 발언문**

임준형(노동자연대 활동가)

여러 차례 난민 반대 집회를 열며 난민 혐오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지난주에 이집트 난민 단식 농성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회자는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이드 씨의 지인인 난민신청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 왜곡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째, 사회자는 A씨가 가짜 난민이라며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난민면접조서 사진을 근거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면접조서에 따르면 A씨가 스스로 본국에 돌아가도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난민신청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회자 말마따나 A씨가 ‘가짜’ 난민이라면, 자기 입으로 ‘나 가짜 난민이오’ 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이 있다면 이 난민면접조서를 처음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뭔가 이상해서 A씨의 페이스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A씨는 면접관에 의해 조작된 허위 면접조서라는 글과 함께 그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난민 지원 단체들이 여러 건의 허위면접조서를 발견해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A씨의 면접조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허위면접조서가 19건이나 발견됐고, 모두 서울출입국의 동일한 담당 공무원과 아랍어 통역자의 면접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법원의 직권 조정 권고를 받아 법무부가 난민불인정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난민면접조서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사회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면접조서 내용을 보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A씨가 페이스북의 면접조서 사진에 조작된 것이라고 쓴 글은 그냥 간단히 무시해버린 것입니까? 그렇다면 가짜 난민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민감한 사안을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없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떠들어댈 수 있습니까? 난민 일반에 대해 어떻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을 콕 찍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난민을 비방하는 다른 주장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그 사회자는 A씨가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면서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근본주의 극렬 테러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S씨가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양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집트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과거 독재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고, 한때 당원 수십만 명을 거느린 대중정당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명 이상이 현재의 군부 정권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슬림형제단은 ‘아랍의 봄’의 일부였던 이집트 혁명 이후 대중의 사회 개혁 열망에 힘입어 선거로 집권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단체면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에 표를 던진 이집트 국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라는 것입니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집트 군부는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 무슬림형제단을 공격해 군사 독재 체제로 회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적인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해왔습니다.

요컨대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단체라는 주장은 이집트 정치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현 이집트 정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이거나, ‘무슬림은 곧 테러리스트’라는 이슬람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기초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주 예멘 난민 개개인의 페이스북을 뒤져서 총을 든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양 몰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총 든 미국인 사진도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모든 미국인이 위험인물이 아니듯이, 전 세계 무슬림 16억 명 중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을 부추기는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면서 언제까지 특정 종교 혐오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집회에서 뿌린 유인물에는 “몰려오는 무슬림들에 대하여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있었습니다.

난민 반대 진영은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난민법이 아예 없지만 2016년, 2017년에 각각 난민 신청자가 한국보다 1.4배, 1.9배 많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만 봐도 난민법 시행과 난민신청자 증가는 시기적으로만 겹칠 뿐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 난민신청자가 늘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아랍의 봄’이 패배하고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부 국가들이 생지옥으로 변하자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아가 그랬고 이집트도 정치적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그 중 극히 일부가 머나먼 한국까지 온 것이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문과 자료에 정리된 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난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난민 반대 집회에 기웃거리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김진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한테 난민법 폐지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복지 수준을 현재의 난민 복지 수준으로 만드는 법안들도 발의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국민이 먼저”라더니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져 ‘국민’의 최저임금을 삭감했던 했던 그 의원들이 아마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난민 반대 진영은 근거 없는 난민혐오와 이슬람혐오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